휴대전화 스팸문자 '확인' '연결' 버튼 눌렀다가…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극성

인증절차 없어 속수무책 … 지난해 4320억 피해

주부 박모(여·3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 버튼을 눌렀으나 문자 내용과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됐다. 곧이어 '사용요금 7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학생 이모(25·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미확인 포토메일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결버튼을 누르자 연예인 화보의 다운로드를 권유하는 메시지가 떴다. 종료 버튼을 황급히 눌렀지만 곧이어 '5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사원 강모(여·29·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엊그제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를 본 뒤에야 정보이용료 2990원이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강씨는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결제 내용을 물었으나 '인터넷 콘텐츠 사용요금'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엉뚱한 화보에 접속하거나 여름휴가철을 맞아 무료체험 당첨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결제를 유도하는 스팸문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4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확인, 경품 제공, 무료체험 등으로 접속해 요금을 납부하는 사기가 잇따르면서 진흥원과 통신사 측에 하루 18만 건의 스팸 의심 문의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한 해 동안 43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측은 고객센터에 확인해 결제한 해당 업체를 통해 취소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번거로운 절차 탓에 취소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를 위한 연결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 실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스팸문자 전체피해 추정액 4320억 원 중 소비자가 구제받은 금액은 432억 원 뿐으로 피해자 중 90%가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사기 문자의 경우 대부분 번호가 없어 스팸 등록이 어렵다"며 "번호 없이 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가 올 경우에는 섣불리 응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본 후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반갑다, 소나기" 막바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4일 오후 광주 지역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뿌려져 땡볕에 타오르던 도심을 적셨다. 금남로를 거닐던 시민들이 갑작스런 소나기에 황급히 발길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관비리 연루 시·도의원 상당수 의원직 상실 가능성

"오 前시장 대규모 사업 비리 또 터진다" 소문 무성

여수 '오현섭 쓰나미' 예고

여수 야간 경관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회 전·현직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경찰은 24일 뇌물을 제공한 주모(67)씨의 진술을 토대로 16명의 전·현직 여수시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5일째 이어갔다.

증뇌물 전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주씨는 경찰에서 금품로비를 위해 접촉한 당시 시의원이 전체 22명 중 16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500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해 8명이 입건됐다. 주씨는 또 나머지 2명은 돈을 줬으나 반환했고, 4명은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종 확인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루된 시·도의원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관련자 16명이 주씨가 돈을 건넸을 당시 수뢰, 수뢰후 반납, 수뢰 거절 등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따른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오현섭 전 시장 재임시 진행된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또다른 비리 사건이 금명간 터질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아 관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이번 의원집단 수뢰사건으로 의정활동에 일부 차질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26명 중 현재 확인된 비리 연루자는 3명으로 나타나 내달 1일 개회되는 정례회도 예정되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3~26일(10명), 9월 27~30일(14명)등 두 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가 무기 연기되는 등 이미 사태의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머지않아 지역사회에 야간 경관조명 사업 비리에 따른 파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동료 체포 경찰 멱살잡이 … 조폭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4일 경찰관이 동료를 체포하는 것을 방해한 신서방파 조직폭력배 임모(25)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나가던 여성을 위협한 조직폭력배 조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웨딩홀 앞 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화정파출소 정모(43)경사 등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차 앞을 자신의 차로 가로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경사 등은 임씨와 같은 조직원 조씨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가던 20대 여성에게 "함께 놀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이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복어알환' 제조·판매

식약청, 50대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복어독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한 '복어알환'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권모(55) 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권 씨는 200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 총 1200kg,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올려 암환자 등을 상대로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복어알환 등에서 테트로도톡신이 그램(g) 기준 최소치사량 2.0mg 보다는 적은 0.02~1.55㎍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암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적은 양의 테트로도톡신에도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과로·스트레스 자살

공무상재해로 인정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 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산 소금 19t '포대갈이'

국산 둔갑 판매 50대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양모(54)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3일 중국산 소금 19.2t(30kg짜리 640포대)을 들여와 목포시 동명동 소금창고에서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30kg당 4500원에 소금을 수입해 2배 이상인 국내산 유명 천일염 가격에 팔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할머니 많이드세요" 24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피그마니 음식점 천창석 대표가 저소득 조손가정 150여명을 초대해 마련한 점심식사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에게 쌍추쌈을 건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자협회, 광주경찰청 항의방문

성추행 경찰 엄중문책 촉구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일보 지회가 24일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박원우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 5명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 정순도 차장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 뒤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사회적인 물의와 함께 지역 언론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경찰 간부를 엄중문책하는 것은 물론 여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해당 간부를 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경찰청에서 징계 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감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또 "직원들을 상대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학생, 모텔서 채팅녀 지갑 '슬쩍'

쌍나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지갑을 훔쳐 달아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덜미.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1년 김모(20)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A(여·21)씨가 잠든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도망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자정께 A씨를 만나 새벽 4시까지 어울려 술을 마시고 같이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경찰에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 A씨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